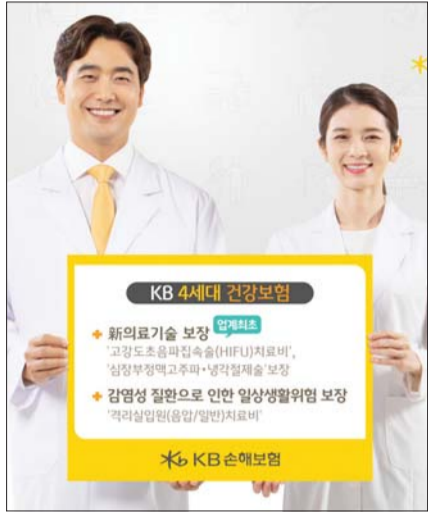


“튀어야 산다” 보험사, 4세대 수술 보장 등 건강보험 차별화

KB손보, 출시 후 18억 매출 달성
하나손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롯데손보, 건강등급 따라 할인



KB손해보험의 'KB 4세대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KB손해보험

건강보험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험사별 특징을 강화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많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새로운 보장 및 할인혜택 등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의 'KB 4세대 건강보험'이 지난 7월 출시 이후 두 달만에 1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해당 상품은 상품명에 걸맞게 1세대 수술부터 4세대 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컨셉트의 상품이다.

특히 'KB 4세대 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신 의료기법 등을 보장하고 있다. '자궁근종 고강도초음파집속술 하이푸(HIFU)치료비'와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이푸'란 피부조직의 절개없이 체외에서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 근종만 괴사시키는 원리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기존 복강경근종절제술에 비해 주변 장기손상 및 유착에 대한 위험이 없다.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은 고주파 또는 냉각을 통해 부정맥 발생부위에 조직괴사를 유발해 치료하

는 시술이다. 첨단수술기법인 '다빈치로봇 암수술비' 보장도 탑재했다. '로봇 수술'은 의사의 시야확보가 용이하고 손 떨림을 방지해 수술 성공확률이 높다. 절개 부위 최소화 수술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해 최근 선호되고 있는 첨단수술기법이다. 다만 고가의 치료비로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나손보도 최근 '하나 그레이드(Gaade) 건강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며 독창성 확보를 위해 나섰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일명 '보험 특허권'으로 불리는 보험업계의 제도 중 하나다. 손·생보험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신상품에 대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3·6·9개월 등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

이 상품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적용해 업계 최초로 고객의 건강등급별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건강이 양호한 고객은 4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건강등급이 양호하지 못하다라도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을 받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료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5년 후 건강등급을 재산정해 건강등급이 개선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손보도 건강등급에 따라 할인되는 건강보험을 내놨다. 롯데손보의 '렛:점프(let:jump) 종합건강보험'은 그레이드 헬스체인을 통해 고객의 건강등급을 판정한다. 고객의 건강등급이 1~3등급을 충족할 경우 연 1회에 한해 월 영업보험료 15%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생보사들도 특색 있는 건강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NH농협생명도 농협 출범 60주년을 맞아 특별한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6가지 질환 중 원하는 보장만 직접 선택하는 모바일 전용 DIY상품인 '내맘대로NH건강보험(무)'이다.

이 상품은 ▲암 ▲뇌 ▲심장 ▲간 ▲폐 ▲신장 등 6가지 보장 중 1개 이상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각각의 보장마다 2가지 또는 3가지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보장의 폭도 넓혔다. 필요한 보장만을 담을 수 있어 기존에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에게도 보완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담은 건강보험이 연달아 출시되는 데는 이미 많은 고객이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특색있는 보장과 혜택으로 눈길을 모으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상품 경쟁력이 필수가 됐다. 대부분 비슷한 보장 외에 보험사별 차별화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기존 건강보험 보다 별도로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존 건강보험과 비교해 출시 이후 판매량이 더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8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 3% 돌파

가계대출 월중 등락률 가장 높아
한달만에 0.12%p 뛰며 3.10% 수준

은행권 신규대출의 평균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의 월중 등락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는 연 2.87%로 전월 대비 0.10%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각각 0.09%p, 0.07%p 올랐다.

가계대출은 지난 2019년 말 2.98%에서 2020년 말 2.79%로 다소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 6월 2.92%에서 7월에 들어서며 2.98%까지 확대됐다. 이어 한 달 만에 또다시 0.12%p 뛰며 3.10% 수준을 보였다.

예금금리도 함께 올랐다. 은행권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03%로 전월 대비 0.06%p 증가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은 전월 0.92%에서 0.08%p 늘어났다. 지난 4월 이후 0.82%를 이어오다 두 달 만에 정체가 극복에 성공한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형금융상품도 0.

(예금은행의 가중평균금리) (연%, %p)

| | 2019.12 | 2020.12 | 2021.6 | 2021.7 | 2021.8 | 월중 등락 | |
|-----------|------------|---------|--------|--------|--------|-------|------|
| 신규 취급액 기준 | 저축성수신금리(A) | 1.60 | 0.90 | 0.94 | 0.97 | 1.03 | 0.06 |
| | - 순수저축성예금 | 1.59 | 0.90 | 0.90 | 0.92 | 1.00 | 0.08 |
| | - 시장형금융상품 | 1.64 | 0.95 | 1.08 | 1.14 | 1.15 | 0.01 |
| | 대출금리(B) | 3.22 | 2.74 | 2.77 | 2.77 | 2.87 | 0.10 |
| | - 기업대출 | 3.36 | 2.73 | 2.72 | 2.69 | 2.78 | 0.09 |
| | - 대기업대출 | 3.17 | 2.51 | 2.53 | 2.45 | 2.56 | 0.11 |
| | - 중소기업대출 | 3.50 | 2.89 | 2.85 | 2.85 | 2.93 | 0.08 |
| | - 가계대출 | 2.98 | 2.79 | 2.92 | 2.98 | 3.10 | 0.12 |
| | - 주택담보대출 | 2.45 | 2.59 | 2.74 | 2.81 | 2.88 | 0.07 |
| | 금리차(B-A) | 1.62 | 1.84 | 1.83 | 1.80 | 1.84 | 0.04 |
| 잔액 기준 | 총수신금리(C) | 1.23 | 0.75 | 0.65 | 0.66 | 0.67 | 0.01 |
| | 총대출금리(D) | 3.40 | 2.80 | 2.77 | 2.77 | 2.79 | 0.02 |
| | 금리차(D-C) | 2.17 | 2.05 | 2.12 | 2.11 | 2.12 | 0.01 |

주 : p는 잠정치

0.1%p 상승한 1.15%를 나타냈다. 시장형금융상품의 경우 지난 2019년 말 이후 다시 1%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1.84%p로 전월 대비 0.04%p 늘어났다.

지난달 말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0.67%로 0.01%p, 총대출금리도 연

2.79%로 0.02%p 올랐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12%p로 전월보다 0.01%p 증가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대출금리는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백지연 기자

마이데이터 3만원 이상 경품 못 준다

금융위, 신용정보법감독규정 개정안

앞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가입유치를 목적으로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도하고,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가입 유치를 위해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과도한 출혈경쟁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고,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능접합성, 보안취약점 점검도 의

무화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전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확인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모두 보안성과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중계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API구축하기 어려워 분하기를 획득하고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계기관은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경영업무로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감독규정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銀, '기업뱅킹서비스' 새단장

기업·소상공인 고객 서비스 강화

NH농협은행이 기업뱅킹서비스를 개편했다.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객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해 NH기업스마트뱅킹을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NH기업스마트뱅킹의 소상공인 특화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제휴를 통해 전국 상권분석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신청 창구를 모바일로 확대했으며 소상공인 전용 자금관리 플랫폼인 NH소상공인파트너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연계해 경영노하우 및 세무상담 등 다양한 특화 기능을 제공한다.

새롭게 개발한 '법원 스마트납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법원보관금, 송달료 등을 간편하게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방식도 확대·개선하는 등 공공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 편의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기업소모성자재(MRO) 공급 사업자인 아이마켓코리아와 함께 NH기업고객을 위한 NH전용 할인몰을 구축, 사무용품 및 전문기자재 등에 대한 특가 프로모션도 상시 제공한다.

/권소환 기자 think@

우리은행, 비대면 IRP고객 수수료 면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1일부터 전액면제 한다고 30일 밝혔다.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비대면 IRP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하고 ▲10만원이상 입금한 고객 ▲자동이체를 1년 이상(10만원 이상) 등록한 고객 ▲100만원 이상 추가납입한 고객(ISA만기전환, 퇴직금 입금,

계약이전 포함)이다. 추첨을 통해 다이슨 퓨어 휴미디파이(2명), 삼성 큐브공기청정기(12명), GS25편의점 모바일쿠폰(1100명), 스타벅스 모바일커피쿠폰(1100명) 등 총 2214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